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미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 심리, 1995년 이래 최고치
- Bloomberg: 전문가들, “연준 선호 물가지수 단기적으로 빨리 오를 듯”

[미국 금융]

- WSJ: 증권거래위원회, 가상화폐 거래소 Coinbase 소송 취하
- Bloomberg: 경제 지표 우려로 증시 하락세

[뉴욕시]

- NYT: 뉴욕주지사, “뉴욕시장 해고 대신에 뉴욕시 정부 통제 강화”

[트럼프 행정부]

- Bloomberg: 트럼프의 관세 수입 목표로 무역전쟁 가능성 커져
- Bloomberg: 트럼프 관세 앞두고 한국 수출 부진
- Bloomberg: 트럼프 철강 관세 위협, 아시아 수출 약화시켜
- NYT: 세금 보고 시즌 중 연방 국세청 6천7백 명 해고
- WSJ: 트럼프, 연방 우편국을 상무부 산하에 두려 한다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트럼프 시대에 친환경 항공 산업은 난항
- TechCrunch: OpenAI, 각국에서 AI 수행 도구 Operator 출시
- NYT: 아마존, 제임스 본드 프랜차이즈의 창작 통제권 획득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US Consumers Long-Run Inflation Views Rise to Highest Since 1995

미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 심리, 1995년 이래 최고치

-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인한 고물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 소비자들이 본 장기 기대 인플레이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미시간 대학의 2월 최종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에 연간 인플레이가 3.5%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 이는 지난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, 주로 민주당 설문 답변자들의 이러한 입장이 컸다.
- 반면, 소비자 신뢰지수는 1월에 71.7에서 2월 들어 64.7로 예상외로 감소했다. 이 또한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민주당이나 중도층 답변자들이 감소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.

YahooFinance 기사

Bloomberg: US Inflation Seen Higher, Fed Cuts Later in Economist Survey

전문가들, “연준 선호 물가지수 단기적으로 빨리 오를 듯”

-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빨리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. 연준이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.
- 최근 블룸버그의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,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1월에 2.5%를 상회하면서 1분기에 2.6%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. 또한 전반적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해 보다 빨리 오를 것으로 보았다.
- 즉, 이전 조사에서는 금리 인하가 올해 5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7월로 늦추어졌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에 따른 예상 인플레이, 견조한 일자리 시장, 감세와 같은 재정 정책 등으로 올해 장기 이자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Coinbase Says SEC Intends to Drop Lawsuit Against Crypto Exchange

증권거래위원회, 가상화폐 거래소 Coinbase 소송 취하

- 연방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규제를 추진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동의해 수년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따른 강경 노선을 철회한다.
- 오늘 금요일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가상 화폐 거래 행위를 2년 동안 조사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권고했다는 것이다.
- 코인베이스는 바이든 행정부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맞서 싸웠는데 암호화폐를 주식과 동일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수용하고 가상화폐 업계와 증권거래소의 갈등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Stocks Extend Declines After Weak Economic Data: Markets Wrap

경제 지표 우려로 증시 하락세

- 지난 1995년 이래 장기적으로 소비자 인플레이가 가장 높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우려스러운 미 경제 전망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.
-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지수와 주택, 서비스 활동 등 오늘 금요일 발표된 지표들이 투자자들이 성장 전망을 의심하도록 했다는 분석이다.
- S&P 500은 이번 주 상승을 모두 줄였다. 기대 인플레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 오늘 S&P 500은 0.5%, 나스닥 100은 0.6%, 다우존스는 0.8% 하락했다.

Bloomberg 기사

[뉴욕시]

NYT: Hochul to Seek New Oversight, but Won't Remove Adams for Now 뉴욕주지사, “뉴욕시장 해고 대신에 뉴욕시 정부 통제 강화”

- 뉴욕주지사 Kathy Hochul는 어제 목요일 뉴욕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자신의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뉴욕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 그동안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는 뇌물 수수와 부패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.
- 주지사는 “뉴욕 시민들이 수년 동안 민주당 동지로 제가 지지했던 뉴욕시장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한다”고 하면서 뉴욕시를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- 주지사는 “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장이 직면한 법적 위험을 이용해 뉴욕시를 압박하고 약화시키고 있다”며 이러한 트럼프의 보복 행위에 대해 맞서겠다고 말했다.

NYT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Bloomberg: Trump's Growing Focus on Tariff Revenue Raises Trade War Odds

트럼프의 관세 수입 목표로 무역전쟁 가능성 커져

-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통해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(적자 가능성 때문에) 관세에 따른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이에 따라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국가들에는 불길한 앞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.
- 연방 의회 공화당이 올해 말에 끝나는 2017년 감세법을 연장하려는 상황인데 추가 감세 시 향후 10년간 4.5조 억 불의 비용이 발생한다. 이에 따라 트럼프는 연방정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.
- 백악관은 무역 불균형 감소와 거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레버리지 증가 등을 얻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고 있다.

-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논리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.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여 정부 수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South Korea's Early Exports Sputter Ahead of Trump's Tariffs

트럼프 관세 앞두고 한국 수출 부진

- 올해 2월까지 한국의 수출 모멘텀은 힘을 잃고 있는데 국내 정치의 혼란과 트럼프의 관세 여파 가능성으로 올해 경제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.
- 올해 2월의 경우 작년 동월에 비해 선적 규모(2월 근무 일수 변경 감안)는 2.7% 감소했다. 이는 1월에 당초 보고된 7.7%와 크게 대조된다.
- 작년에 비해 2월에는 근무 일수 증가에 따른 헤드라인을 보면 수출은 16% 증가하고 수입은 7.7% 증가해 무역 흑자는 8억 4백만 불을 기록했다. 설날이 올해에는 1월이었지만 작년에는 2월이었다.
- 대미 수출은 16%, 대 중국 수출은 13% 증가했다. 반도체 선적은 22.1% 상승했으며 자동차 수출은 40.3% 늘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Trump's Steel Tariffs Threaten to Worsen Glut of Metal in Asia

트럼프 철강 관세 위협, 아시아 수출 약화시켜

- 트럼프가 모든 국가의 철강산에 관세를 매길 경우 가장 급성장하던 베트남과 인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.
- 전 세계 철강업계는 오는 3월 12일 철강 관세에 주목하고 있다. 이번 관세 조치는 미 생산업체들을 보호할 목적이지만 중국의 강력한 철강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철강 상황은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.
- 중국 철강 수출로 한국 등 각 나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.
-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이들 국가의 철강은 대미 수출 대신에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.

Bloomberg 기사

NYT: I.R.S. Fires 6,700 Employees Amid Tax Filing Season 세금 보고 시즌 중 연방 국세청 6천7백 명 해고

- 트럼프 행정부는 목요일, 수백만 미국인으로부터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국세청(IRS)의 공무원 6천7백 명을 해고시키기 시작하며 비용 절감 조치를 단행했다.
- 이번 해고는 주로 최근 전국적으로 고용된 국세청 수습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. 이중 5천 명 이상이 감사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규정 준수 팀 소속이다. 특히 세금 보고 시즌으로 관련 문의와 업무가 급증하는 시점에 발생하였다.
- 현재 국세청에는 약 10만 명의 회계사, 변호사,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.

NYT 기사

WSJ: Trump Is Planning to Take Control of the Postal Service, Officials Say 트럼프, 연방 우편국을 상무부 산하에 두려 한다

-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, 트럼프가 연방 우편국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를 상무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두는 행정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어 우편국의 준정부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.
- 우편국 이사회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지만 명령을 중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. 이사회 위원들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
- 트럼프는 지난해 12월, 우편국이 우편 물량 감소와 주 6일 약 1억 6,800만 개 주소로 배달해야 하는 의무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음에 따라 우체국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In the Trump Era, Flying Green Doesn't Matter Anymore 트럼프 시대에 친환경 항공 산업은 난항

- 전기·수소 항공기 개발은 연료전지 기술의 한계와 수소 인프라 부족 등 기술적 난관과 자금 부족 때문에 벤처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줄고 있다.
- 트럼프와 교통부 장관 Sean Duffy의 "미국이 중국과의 eVTOL(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)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"는 발언 이후, 캘리포니아 기반의 Joby와 Archer 등 항공 관련 선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방위산업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다.
- 그러나 궁극적으로 eVTOL 시장은 초기 기대와 달리 제한적인 수요와, 과거 친환경 마케팅 효과 감소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
WSJ 기사

TechCrunch: OpenAI rolls out its AI agent, Operator, in several countries OpenAI, 각국에서 AI 수행 도구 Operator 출시

- OpenAI는 AI 수행 도구인 'Operator'를 ChatGPT 이용 가능 국가 대부분 (EU 및 일부 유럽 국가는 제외)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.
- 오퍼레이터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수행 도구이다. 현재 이는 월 200불의 ChatGPT Pro 가입자 전용 서비스로,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실행된다.
- OpenAI는 구글, Anthropic, Rabbit 등과 경쟁하며, 각 기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다. Anthropic은 API를 통해 액세스 제공, Rabbit은 자체 디바이스 사용자에게만 기능 지원, 구글은 아직 프로젝트 대기 중에 있다.

TechCrunch 기사

NYT: Amazon Gains Creative Control Over the James Bond Franchise 아마존, 제임스 본드 프랜차이즈의 창작 통제권 획득

- 60년 이상 본드 시리즈를 관리해 온 영국의 Broccoli 가문이 아마존과 새로운 합작 투자 설립을 합의했으며, 아마존 MGM(Metro-Goldwyn-Mayer) 스튜디오가 올해 말부터 프랜차이즈의 창작 통제권을 갖게 된다.
- 창작 통제권이란, 작품의 제작 시기, 주연 배우 선정, 리메이크 및 TV 스펀 오프 여부 결정뿐만 아니라 대사, 캐스팅, 액션 장면, 마케팅 전략(광고, 포스터, 프로모션)까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.
- 브로콜리 가문은 본드 007시리즈를 영화에 집중시키려 했으나,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아마존이 공동 소유주가 되면서 TV 스펀오프 등 확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

NYT 기사

[보고서]

뉴욕증시, 월마트 부진한 실적 전망에 '미끌'...금값은 최고치 다우지수 -1.01%·S&P -0.43%·나스닥 -0.47%...월마트 6.53% 급락 안전자산 수요에 금 한때 온스당 2,950달러선...트럼프 취임 후 상승세

미국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과 악화된 경기선행 지표가 20일 (현지시간) 뉴욕증시 투자 심리를 열어 붙게 만들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0.94포인트 (-1.01%) 내린 44,176.65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장보다 26.60포인트(-0.43%) 내린 6,117.52에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3.89포인트(-0.47%) 내린 19,962.36에 장을 마감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